



‘사운드 아트 거장’ 귀환... 융복합 미래 만남

ACC 개관 10주년 기념 ‘료지 이케다’전 복합전시3·4관
최초 공개 신작 3점 포함 7점...극강의 몰입 경험 선사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가 ACC에서 10년만의 개인전을 펼친다. 문화체육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 전시를 10월 개막, 오는 12월 28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선보인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료지 이케다와의 재회를 통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기관의 융·복합 실험 정신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료지 이케다는 지난 2015년 ACC 개관 당시 첫 융·복합 창작자 프로젝트의 하나로 각종 데이터를 흑백의 패턴과 정밀한 전자음으로 변환하는 거대한 설치 예술인 ‘test pattern [n° 8]’ (2015)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ACC의 ‘ACT(Arts&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에 참여해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를 펼쳤다. ACC는 작가와 10년 만의 재협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창의적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진 현대에 예술이 나

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특히 ACC는 예술과 기술, 사회와 문화의 융·복합을 통해 아시아의 가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료지 이케다는 이러한 ACC의 비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신작 4점을 포함해 총 7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먼저 처음 공개하는 ‘data.flux [n° 2]’ (2025)는 DN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하학적 패턴이 전장에 설치된 10m 길이의 LED스크린을 끊임없이 흐르는 작품으로, 전시 입구부터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 다른 신작 ‘critical mass’ (2025)는 가로, 세로 10m의 바다 스크린에 투사된 검은 원과 흰 빛의 극명한 대비와 신체를 울리는 전자음으로 관객의 감각을 증폭시킨다. 이밖에 스테인리스 패널과 천, 아크릴판, 라이트박스 등 다양한 물질 표면에 인쇄된 바코드 패턴을 담은 ‘the sleeping beauty’ (2025) 시리즈와 ‘data-verse’ (2019-2020) 3부작에서 파생된 ‘data.gram [n° 8]’ (2025)도 최초로 공개한다.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 다른 주요 작품인 ‘point of no return’ (2018)과 ‘exp #1’ (2020)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하나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벽체 1000개를 활용해 폐자재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설계를 고려했다. 쉬운 글 해설이 포함된 디지털 가이드와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전시를 감상하는 동안 느껴지는 감정과 신체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게 이용자 중심의 관람 환경을 연출했다. 료지 이케다는 “ACC가 문을 연 2015년 이후 10년만에 다시 초청받게 돼 영광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작품에 대해 따로 해석을 주거나 텍스트로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저 관람객들이 순수한 음악처럼, 콘서트를 즐기듯 각자 경험하며 자유롭게 느끼고 감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융·복합 예술기관인 ACC와 사운드 아트 거장인 료지 이케다의 10년이 교차하는 기념비적인 전시”라면서 “기술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 속 예술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사고, 존재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료지 이케다는 1990년대 순음과 백색 소음 결합을 통해 전자 음악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1996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을 선보이는 ‘덤 타입(Dumb Type, 1986-)’과 협업하며 작업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후 기술과 데이터를 고도화시키면서 데이터 미학과 오디오 비주얼 아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위쪽부터 료지 이케다의 주요 작품 ‘point of no return’ (2018·Photo by Takeshi Asano)과 ‘data-verse 1/2/3’ (2019-2020·Photo by David Stjernholm).

미·중·독 등 다양한 문화권 작가들의 작품 접해볼까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릴레이 개인전 내달 21일까지
위안 린 이어 크리스토프 무게·시오반 맥브라이드 등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는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개인전을 지난 6월 28일부터 돌입, 오는 8월 21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는 올해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상반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시로, 다양한 문화권과 창작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릴레이 개인전에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안 린(Yuan Lin)을 시작으로 스웨덴·독일 국적의 크리스토프 무게(Christoph Mugge),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시오반 맥브라이드(Siobhan McBride),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반의 루스 마분(Ruth Marbun) 등이 참여한다.

8일부터 시작된 크리스토프 무게 작가의 ‘If the Spirits Come’ 전시는 허구의 영적 조적 ‘영혼수호대’의 국가 재난 방송을 상상한 영상 설치 작품으로, 사머니즘과 시인 방위를 결합한 위기 생존의 대안적 프로토크를 제시한다. 생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담은 이 작업은 현대 사회의 혼란과 균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새로운 상상력의 공간을 제안한다. 또 22일부터 이어지는 시오반 맥브라이드 작가의 ‘Homebody’는 뉴욕 자택과 그 주변의 풍경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이탈리아계 가정에 입양된 개인의 서사를 통해 ‘집’이라는 장소가 내포한 기억과 정체성을 탐구

한다. 이번 전시에서 같은 상반기 입주작가인 서영기 작가와와 협업 드로잉과 사운드 아티스트 케일럽 해먼드(Caleb Hammond)의 공간음악 작업이 더해져 도심과 고향, 현실과 내면이 교차하는 감성적 회고를 구성한다. 릴레이 개인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루스 마분 작가는 순수 회화가 아닌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로 주로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여성성, 공동체, 감정의 기록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인도네시아 작가다. 그는 반복되는 손작업과 직관적인 감각을 통해 불안정함을 표현하는 회화를 구성하며, 광주에서의 체류를 바탕으로 지역성과 개인의 기억 및 인도네시아의 신화가 교차하는 작업을 8월 14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함께 2025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키즈라라-ACC재단, 꿈꾸는 직업놀이터 운영

어린이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내달 31일까지 어린이문화원
화순 키즈라라 직업체험 콘텐츠 연계... 과학·미술 등 주제 접목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대표이사 문범갑)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과 함께 2025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키즈라라의 인기 직업체험 콘텐츠와 ACC재단이 발간한 아시아 각국의 그림책 5권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콘텐츠로 구성됐다. 그림책 속 이야기를 키즈라라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환경, 생명, 과학, 미술 등 다양한 주제와 직업체제를 접목한 새로운 융합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특히 단순한 직업체제를 넘어 그림책을 통해 얻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실제 활동으로 확장시키며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구름연구소에서는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통해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환경 음료를 직접 만들어보는 ‘물과 자연을 지키는 음료 만들기 체험’을 선보인다. 이식물 뷰티살롱에서는 ‘이식물 호수의 슬루우수우’ 그림책을 소재로, 아이들이 상상의 물의 여왕으로 변신해보는 ‘헤어 스타일링 체험’이 마련된다. 구름연구소에서는 ‘나의 구름 친구’속 자연현상을 코딩으로 표현해보는 ‘AI코딩 체험’이 운영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세천구 동물병원에서는 그림책 ‘세 친구’를 기반으로 수의사가 돼 반려동물들을 치료해보는 것은 물론 생명존중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세계질 향기공방 향수연구소는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를 주제로 계절의 향기를 표현한 디퓨저 제작 체험을 통해 오감 발달과 감성 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책과 친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형 전시”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장료는 만 4세 이상 14세 미만 1만원, 만 14세 이상 2000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자연의 미묘한 변화 섬세한 감정 결 포착

조선아 개인전 광주에당 갤러리

광주예술의전당은 전시지원 공모전시의 하나로 한국화가 조선아 개인전을 11일 개막, 오는 8월 10일까지 전당 내 갤러리에서 갖는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깊이 사유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감정의 섬세한 결을 포착한 회화 작품 35점이 출품, ‘시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선보인다. 일상 속 익숙한 풍경들을 기록하며, 그 안에 깃든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는 작가는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 새벽의 투명한 공기, 노을이 번지는 순간 등 겉보기에 비슷한 하루 속에서 빛과 온도, 공기, 감정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정경을 집중하고 사유한다. 이런 변화의 결에 주목하고, 찰나의 감정과 색채의 변화를 포착해 흐르는 시간을 화면 위에 정제된



‘물’의 유랑’

시선으로 기록한 작가는 분채와 한지 등 한국화의 전통 재료를 사용, 시간이 머무른 순간의 잔상을 표현한다. 한지 위에 여러 겹의 색을 얹고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감정의 층위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 반복은 자연의 순환과도 맞닿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은한 색채는 햇살처럼 천천히 스며들며,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기는 한편, 자유로운 빛깔은 기억과 감정의 흔적을 차분히 아로새기며,

평면 위에 시간의 결을 찬찬히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가만의 섬세한 감각과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아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미술대학 석사졸업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에서 개인전 10회 및 다양한 기획전시에 참여했다. 2022년 광주문화예술상 의재 허백련 특별상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